

학교사회복지 슈퍼비전 과정모델 연구

김 지 연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민간재원과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는 직무표준 및 공식적인 매뉴얼이 부재한 속에서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는 사업의 성과는 물론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러한 성과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은 학교사회복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담보되어야 할 핵심 요소라 하겠다.

교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행정가의 슈퍼바이저, 실습생의 슈퍼바이저라는 이중 지위 속에서 다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직무성과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슈퍼비전이 요구되며 이는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 차원에는 전문적 발달, 행정과 정책, 대인관계기술, 개입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슈퍼비전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지회를 축으로 슈퍼바이저 은행 운영, 슈퍼바이저-실무자간 멘토링과 사안별 자문진 구축을 포함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슈퍼비전을 통해 자기중심적-클라이언트 중심-과정중심-맥락 내에서 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 이러한 슈퍼비전은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슈퍼비전 관계 중심의 과정모델(7-eyed model)을 설정해 보았다(Fortune, 1994 재구성).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하여 학교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실습생, 슈퍼바이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7개의 mode로 구분하였고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내용과 관련한 슈퍼비전과 전문가로서의 인식 갖기에 초점을 둔 슈퍼비전이라는 내용적 측면이 이중구조(double matrix)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 mode에 대한 요약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mode 1은 case 중심의 접근, mode 2는 개입기술 선택과 활용 능력에 대한 탐구, mode 3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중심, mode 4는 학교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전이 역전의 이해, mode 5는 관리적 관계에 초점 맞추기, mode 6은 실습생의 사례 자문하기, 슈퍼바이저로서 기능하기, 마지막으로 mode 7은 윤리강령과 조직환경의 이해를 토대로 맥락 내에서 과정에 초점을 두는 총체적 시각 갖기.